

전에 중공군이 그들을 앞질렀고, 유엔군의 폭격 밑에 놓였다. 수없는 피난민이 얼음판에 기꾸러졌다. 피난점을 끝낸 소는 굴레를 찬 채 두 밑으로 굴렀다. 피가 철철 흐르는 시체 옆에 아이가 울고 있었다. 진영은 눈을 가리고 달아났던 것이다.

악몽과 같은 전쟁이 끝났다.

진영은 아들 문수(文秀)의 손을 잡고 황폐한 서울로 돌아왔다. 집터는 축대밭이 되어 축대조각 찾아볼 수 없었다. 진영은 집풀 속에 박힌 기왓장 밑에서 습기가 차서 나털나털해진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프랑스文學의展望』이라는 일본 책이었다. 이 책이 책장에 꽂혔을 때—순간 진영의 머릿속에 그러한 회상이 환각처럼 지났다. 진영은 무심한 아이의 눈동자를 멍하니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있었다.

문수가 자라서 아홉 살이 된 초여름, 진영은 내장이 터져서 파리가 엉겨붙은 소년병을 꿈에 보았다. 마치 죽음의 예고처럼 다음 날 문수는 죽어버린 것이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었다.

일찍부터 홀로 되어 외동딸인 진영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어머니는 ‘내가 죽을 거로’ 하며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치는 것이었으나 진영은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 길에서 넘어지고 병원에서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진영으로서는 전쟁이 빚어낸 하나의 악몽처럼 치차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의사의 무관심이 아이를 거의 생죽음을 시킨 것이다. 의사는 중대한 뇌수술을 엑스레이도 찍어보지 않고, 심지어는 약 준

비도 없이 시작했던 것이다. 마취도 안한 아이는 도수장(屠獸場)\* 속의 망아지처럼 죽어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다버린 진영이었다.

비갈 거리 위에는 쇠아 하며 밤비가 내리고 있었다.

누워서 떨거나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진영의 눈동자가 이따금 불빛에 반드인다. 창백한 불이 불그스름해진다. 폐결핵에서 오는 발열이다.

비갈의 밧소리가 즐기쳐온다.

아이가 죽은 지 겨우 한 달, 그러나 천 년이나 된 듯한 긴 밤들이었다. 눈을 감은 진영의 귀에 조수(潮水)처럼 밀려오는 것은 수술실 속의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진영은 변덕 자리에서 일어나 술병을 들이켠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마셔보라고 친구가 보내준 포도주였다.

이불 위에 엎드린 진영은 산울림처럼 멀어지는 수술실 속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잠이 든다. 꿈속에서 회미한 길을 마구 쫓다니며 아이를 찾아 헤메다가 봉대를 친친 감은, 눈도 코도 입도 보이지 않는 아이 모습에 진영은 소스리쳐 갠다. 흥건 땀에 젖은 몸이 기게 떨고 있었다.

별안간 무서움이 끼친다.

비가 맺은 새벽이 창가로부터 서서히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허공을 보고 있던 진영은 왜 무서움을 느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이가 이미 유령(幽靈)\*의 혼령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글픈 인간관계가 어디 있겠는가. 진영은 구역이 나올 정도로 자기 자신이 싫었다.

성당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요다음 주일날에는 꼭 나를 정당에 데려다달라고 갈월동(葛月洞)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한 일이 생각난다. 바로 오늘이 그 주일날이다.

갈월동의 아주머니는 약속한 대로 여덟 시가 못 되어서 왔다. 아주머니는 옛날에 죽은, 진영의 칠촌아저씨의 마누라였다. 지식도 없는 그는 아주 독실한 천주교의 신자였으나 근래에 와서 계로 인하여 상당히 말썽을 빚었다. 진영이만 해도 바닥까지 굶은 돈으로 겨우겨우 넣어진 이십만 환짜리 계를 소롯이\*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만큼 계주를 한 아주머니의 사정이 급박했던 것이다.

매미 날개같이 손질을 한 모시옷을 입은 아주머니는 울고불고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는데 아주머니가 말할 적에는 금으로 씌운 송곳니가 일른알른 보였다.

어머니는 아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손을 잡고 손주를 잃은 허소연을 했다. 진영은 그러는 어머니가 싫었지만 그러나 딸 하나를 믿고 산 그가 여러 가지 면으로 서러운 위치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

“우시지 마세요, 형님. 산 사람 생각도 허셔야지. 진영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이리지 마세요. 그리고 살아갈 길이나 생각하십시오.”

진영이 실적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 살길도 막연하긴 했다.

아주머니는 갖가지 말로 어머니를 달래다가 풀어진 고름을 여미며 (아주머니는 작삼에도 반드시 고름을 달았다).

“우리 어디 사는 대로 살아봅시다…… 그리고 나도 생각하고 있

었어요, 형님 돈만큼은 돌려드릴려구. 원금만이라도요……”

어머니의 얼굴이 좀 밝아졌다. 진영은 잠자코 양말을 신고 있었다. 세 사람은 거리에 나왔다. 아침이라 가로수가 서늘했다.

문시 불교도인 어머니는 성당으로 가는 것을 꺼려했으나, 그러나 아무래도 좋았다. 의지는 항상 딸에게 있는 것이었으니까……

아주머니는 진영의 양산 밑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소곤거렸다.

“천주님이 계신 이상 우리는 불행하지 않다. 천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어 너를 부르신 거야. 모든 것이 다 허망한 인간세상에 다만 천주님만이 빛이 된다.”

신지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꼭 같은 말을 아주머니는 말했다.

진영은 땅을 내려다본 채,

“제가 구원을 받자고 가는 건 아니에요. 천당이 있어서 그곳에 문수가 놓고 있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래, 천당 갔다. 그렇게 착한 아이가…… 아암 행복하게 꽃동산에서 놀고 있고 말고.”

연장자답게 위로하는 것이었으나 말투가 너무 어수룩했다.

“이무리 꽃동산이라도 그 애는 외로울 거예요. 엄마 생각이 달거예요.”

진영은 혼자 중얼거리며 하늘을 보았다. 나을처럼 엷은 구름이 가고 있었다.

“그런 소리 말고 영세나 받도록 준비해. 상배(相陪)도 영세를 벌써 받았어.”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먼 지평선에서 울려오는 것 같았다. 진영은

기계적으로,

“그 무신론자가…… 영세를……?”

“그 애도 요즘 심경이 많이 변했어.”

분냄새가 없게 풍겨온다. 진영은 금니가 알뜰알뜰 보이는 이주머니의 입매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상배는 이주머니 댁에 하숙한 대학생이다. 지나간 봄에만 해도 그는,

“이주머니요, 예수가 물 위로 걸었다겠능지요. 하하하! 아마 예수님은 원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올렸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올렸던거예요. 하하하……”

그런 부산 사투리의 조롱이 자기 면에는 아주 신통했던지 상배는 콧머리를 벌름거리며 웃었던 것이다. 진영이 그것을 생각하는 동안 이주머니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그 애도 우리 집에서 쉬이 옮기게 될 거야.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서울로 오신다니까…… 그래서 나도 그 애가 나가기 전에 영세받도록 할려구……”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들이 성당 앞까지 왔을 때 은행나무에 자진한\*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다. 트랙에는 연분홍빛 글라디올러스가 피어 있었는데 진영은 불교의 상징인 연화를 왜 그런지 연상했다. 그리고 엉뚱스럽게 그 꽃들이 지어내는 서양과 동양의 거리를 생각해보는 것이었다. 막연한 생각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진영은 얼떨떨하게 자기의 마음을 더듬었다. 문수를 위하여 신을 버린 온 마당에서 아무런 경건함도 없이

이렇게 냉정히 사물을 헤아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다만 시각(視覺)에서 온 하나의 자연발상(自然發想)이라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내 슬픔 속에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라는 말인가, 진영은 문수에게 부끄러웠다. 미안했다.

진영은 땀에 젖고 분냄새가 풍겨오는 이주머니의 젓기슴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나무 그늘 아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그 옆에는 중년남자 한 사람이 십자가·성경책 같은 것을 노점처럼 벌여놓고 팔고 있었다. 진영은 어느 유역의 이방인인 양 그런 광경을 넘겨다보았다. 분위기에 싸이지 않는 마음속에는 쌀쌀한 바람이 일고 있었다.

진영은 성당 안으로 돌아갔다. 이주머니는 신발을 책보에 싸면서, “주로 아이들을 위한 미사시간이 되어서 시끄러워. 다음엔 일찍 와요.”

진영은 이주머니의 말보다 거추장스럽게 신발을 싸 들고 가는 신자들의 모습에 눈이 따라가는 것이었다. 진영은 문득 예수 사랑하러 고 예베명에 갔더니 눈감으라 하고서 신도독질하더라, 그런 이유에 찬 노래를 생각했다. 그러나 진영은 곧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신전(神殿)에서 신을 모독하다니——그런 죄의식에 쫓기며 진영은 이주머니의 뒤를 따랐다.

얼마 후에 미사는 시작되었다.

“가없는 나의 아들 문수를 위하여 기도를 올리나이다. 진심으로…… 진실로 비나이다. 그 고통으로부터 놓이게 하시고, 어린 영혼에게 평화가 있기를……”

진영은 눈을 감고 그런 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있는 헤살꾼\*의 속삭임이 더 집요했다. 헤살꾼은 속삭인다. 문수는 죽어버린 것이다. 아주 영영 없어진 것이다. 진영은 눈앞이 캄캄해오는 것을 느낀다. 헤살꾼은 속삭인다. 칼끝으로 곁을 찌게서 죽어버린 것이다. 무참하게 죽어버린 것이다.

진영은 눈앞에 시뻘건 불명어리가 쿨리거는 것을 본다. 헤살꾼은 지꾸만 속삭인다. 어둡고 침침한 명부(冥府)\*에서 압축한 듯한 목선 아이의 울음소리, 진영은 땀을 흘리며 눈을 떴다. 코앞에 닿은 어머니의 머리에서 땀배가 풍겨온다. 현기증을 느낀다. 신지들의 머리에 쓴 하얀 미사포가 시계와 의식을 하나로 포백시켜버리는 것이었다.

얼마 동안이 지났는지 진영은 고개를 돌렸다. 구체품이 늘어선 듯한 성기대의 아이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아이들의 각색의 음계가 합한 성기는 바람을 못 미신 오르간의 잠음처럼 진영의 귓가에 울렸다. 이 속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는 을씨년스런 자기 자신의 모습, 진영은 그것이 얼마나 어설픈 위치인가를 깨닫는다.

진영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미웠다. 결코 자기는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미웠던 것이다. 진영은 어떻게 해서라도 객관적인 자기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진영은 잃어진 낭만을 찾아보듯이 신과 문수의 죽음이 동렬의 신비라는 것, 그리고 아무도 신과 죽음을 비환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라 생각했다.

진영이 처음 성당에 나가려고 결심했을 때, 그것(종교)이 가공에 설정된 하나의 가정일지라도 다만 문수를 위한다는 명목만으로 자신

이야 빼에도 오뎅이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의식적인 명목은 끝내 명목일 수 없었다.

미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진영은 긴 작대기에 흰금주머니를 매단 잠자리채 같은 것이 가슴 앞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아주머니가 정금하게 돈을 몇 닢 던졌을 때 잠자리채 같은 흰금주머니는 슬그머니 뒷줄로 옮겨지는 것이었다. 진영은 구경꾼 앞으로 돌아가는 풍각쟁이\*의 낡은 모자를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계기로 하여 진영은 밖으로 나와버렸다.

진영은 나무 밑에 주저앉아서 나오는 어머니의 빨간 눈을 보았다. 문수 포래의 아이들이 신발을 신으며 나오는 것도 보았다.

여름 햇빛 아래 서 있는 성당이 가늘게 요동하고 있는 것같이 진영에게는 느껴졌다.

이침부터 진영은 마루 끝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갑갑하게 그리지 말고 밖이라도 좀 나갔다 오라는 어머니의 말이 도리어 비위에 거슬러 진영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머리를 부여안는다.

갑갑한 때문만이 아니다. 진영은 일자리를 찾아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진영은 머리를 부여안은 채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하며, 누구에게 매달려 발자리를 하나 달라고 하겠는가, 더군다나 폐까지 앓고 있는 내가.....

진영은 문수를 생각했다. 살겠다고 버둥대는 어머니와 자기의 모습이 한없이 비루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마당에는 대낮 햇빛이 쨍쨍 쏟아지고 있었다. 그들이 짙어진 쌍나무\*의 돌레로 잉잉거리고 다니던 파리떼들이 진영의 얼굴 위에 물린다. 어머니는 장독대 옆에서 빨래에 풀을 먹이고 있었다. 넓적한 허벅지가 앞사귀 사이의 그 꺾은 옆얼굴을 바라보는 진영은 바다에 떠밀려다니는 해파리(腔腸動物)를 생각했다. 그렇게 둔하면서도 산다는 분능만은 가진 것, 그저 산다는 것, 진영은 어머니에 대한 잔인한 그런 주시를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었다. 진영은 성가시게 구는 파리를 쫓으며 마룻바닥에 드러눕는다.

하늘이 파했다. 구름이 동동 떠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늘이 갑자기 바다같이 느껴졌다. 구름은 바다 위로 동동 떠내려가는 해파리만 같았다. 진영이 자신이 누워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찌보면 엎드려서 바다를 내려다보는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든다.

해가 서쪽으로 좀 기울었다. 쌍나무의 그늘이 두서너 채\*나 늘어난 것 같다. 진영은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마루 밑의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문이 비껴 하더니 열린다. 땅을 보고 있던 진영의 눈에 우선 사람의 그림자가 먼저 들어왔다. 그림자를 따라 천천히 눈을 치켰을 때 그곳에 바깥\*을 짙어진 여승이 서 있었다. 초현실과의 그림같이 그림자를 밟고 선 여승의 소리 없는 길다란 모습.

드디어 함장을 하고 있던 여승이 입을 열었다.

“어찌!”

완전히 조화를 깨뜨린 소녀외도 같이 카랑카랑하게 울려오는 맑은

목소리다. 바깥에 흰 어깨는 아무래도 사십 고개일 터인데—여승은 부스스 일어나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는 진영의 형용할 수 없이 어두운 눈빛에 지친다.

마침 앞치마에 손을 댄으며 나오는 어머니를 본 여승은 잠시 숨을 돌이킨 듯이

“마나님?”

의연히 맑은 목소리다.

어머니는 마루 끝에 주저앉으며 긴 한숨을 쉰다.

“나도 잘살 적에는 부처님을 섬기고 쉼마다 불을 쬐긴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도 헛말이더군요……”

비아호로 아이가 없어진 허수연이 시작되는 것이다. 판에 박은 듯한 푸념이 언제 그칠지 모르겠다. 눈을 깜빡거리며 말할 기회만 노리던 중이 드디어 어머니의 말허리를 꺾어버린다.

“……아이 딱히기도 해라. 그러게 말이유…… 그렇지만 시주하십사고 온 게 아니라…… 행여 쌀을 살려나 해서…… 아이주 무거워시요……”

그런 구슬픈 이야기보다 빨리 거래부터 하고 싶다는 표정이다. 진영은 값싼 동정까지도 인쇄해진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동정을 바리는 어머니가 밭기보다 딱한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말이 미진한 어머니는 좀 어리둥절한 얼굴이다.

“무거워서 어디 가져갈 수가 있어아지요. 좀 짐을 덜고 갈려구요.”

여승은 마루 끝에 바깥을 내리며 의사를 거듭 표시한다. 그제야 중의 수작을 알아차린 어머니는 여태까지의 감정을 일단 수습하고 치

마 말기\*를 추키며 재빨리 응수다.

“우리도 되짚을 팔아먹으니 기왕이면 사지요. 되나 후회 주세요.”

중은 바깥을 끌리놓고 짚을 피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몹시 찢되가 아위다고 보채고 중은 뒷박 위에도 짚을 집어 었는 어머니의 팔을 떠밀며 그러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러저럭 거쾌는 끝난 모양이다.

샘을 미친 어머니는 인사로,

“시님이 계신 절은 어디지요?”

“네? 아아 네, 바로 학교 뒤에 있는 절이지요.”

학교 뒤라면 짚을 팔고 갈 정도로 먼 곳은 아니다.

중이 가고 난 뒤 어머니는 무슨 생각에 잠긴 듯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에 진영아.”

나직이 부른다. 진영은 대답 대신 어머니의 눈을 본다.

“문수를 그냥 불러나 이리 가슴이 메인다. 이렇게 흔적 없이 두다

나…… 절에 올려주지!”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는 진영의 시선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다.

“절도 기쁘고 신명이니 만만하고…… 세상에 너무 기없이. 아무래도 혼백이 울면서 떠돌아다니는 것 같이 와이지.”

진영은 고개를 돌려 정독대의 헤바라기를 바라본다. 한참 만에,

“그렇게 합시다.”

헤바라기를 쳐다본 채 한 대답이다.

“그런데 왜 그리 중을 장사꾼 대접을 했어요? 아이를 부탁할 생각

을 했으면서……”

진영의 시선은 여전히 헤바라기에 가 있었다. 자기가 하는 말에는 별반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아며, 벨소릴 다 하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 하기가 뭐 시주받은 짚 팔고 가는 그게 진짜 중인가?”

진영은 그러는 어머니가 미웠다.

“그럼 왜 그런 중이 있는 절엔 갈려구 해요?”

“누가 중 보고 절에 가나? 부처님 보고 가지.”

진영은 잠지코 옳은 말이라 생각했다. 그와 동시에 이주머니가 우선 쓰라고 돈이란 환을 주면서 성당에 나가지 않는 진영을 나무라던 일이 생각났다. 이렇게 절에 갈 것을 동의하고 보니 왜 그런지 이주머니에 대하여 변절을 한 듯 미안하다. 그리고 돈만 하더라도 명연히 받을 돈을 받았건만 다른 사람들에게 배풀지 않았던 호의가 빛이 되는 듯싶다. 그러나 진영의 종교가 오직 문수를 위한다는 명목뿐이라면 성당보다 절이 훨씬 표현적(表現的)이다. 적어도 돈만 낸다면 절에서는 문수를 위한 단독적인 행사도 해주기 마련이다.

진영은 자리에서 후딱 일어섰다.

해가 사진에 아주 기울었다. 거리로 나왔다. 진영은 약국에서 스트렙토마이신 한 개를 사들었다. 내내 다니던 Y병원에는 아무래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약을 산 것이다. 간월동의 이주머니는 Y병원의 의사가 같은 신지이니 믿고 다니라고 했다. 그러나 여태까지 주사분량인 한 병에서 겨우 삼분지 일만 놓아주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안 이상 그 병원에 다시 갈 수는 없었다.

약병을 만지며 걸 위에 한동안 서 있던 진영은 짐 근처에 있는 S병원에 들어갔다. 이웃이기 때문에 의사와 안면쯤은 있었다. 그러나 S병원엔 영터리병원이었다.

진영은 모든 것이 서툴러 보이는 것 테러다툼은 듯한 간호원을 불안스럽게 쳐다보며 약병을 내밀었다. 진찰도 하지 않고 주사만 맞으러 오는 손님을 의사는 언제나 냉대한다. 그래서 진영은 애시당초 의사를 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환자를 진찰하고 있던 의사가 뒤로 고개를 돌렸을 때 진영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의사가 아니었다. 그나마도 근처에 사는 건달꾼이었던 것이다. 진짜 의사는 그때야 서류 같은 것을 들고 안에서 분주히 나오더니 바쁘게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청진기를 든 건달꾼은 진영의 눈살에 켜졌는지 우물쭈물 헤치우더니 간호원에게,

“페니시링 이 그림!”

하고 밖으로 슬그머니 사라진다.

페니실린이라면 병명을 몰라도 만병통치약으로 건달꾼은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진영이 명칭히 썼는데 간호원은 소독도 안한 손으로 아주 서툴게 마이신을 주사기에다 뽑고 있었다. 진영이 정신을 차렸을 때 주사기에 들어가고 있는 액체가 뿌옇게 보였다. 약이 채 녹기도 전에 주사기에다 뽑은 것이다. 진영은 더 참지 못했다.

“안돼요. 녹기도 전에, 큰일 날려구!”

양갈지게 소리치며 진영은 약병을 빼어서 흔들었다.

페니실린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앉았는 낮빛이 노란 할머니가 주사

기를 들고 영겨주춤하니 서 있는 간호원을 불안스럽게 보고 있다. 병원문을 나섰다. 이미 밤이었다.

이까, “큰일날려구” 하면서 약병을 빼앗던 자기의 모습이 어둠 속에 동그렇게 그려진다. 참 목숨이란 끔찍이도 주체스럽고 귀중한 것이고—몇 번이나 죽기를 원했던 자기 자신이 아니었던가.

진영은 배꼽이 터지도록 밤하늘을 보고 웃고 싶었다. 그러나 그 웃음이 터지고 마는 순간부터 진영은 미치고 말리라는 공포 때문에 머리를 꼭 감쌌다. 사실상 내가 미쳤는지도 모른다. 모든 일은 미친 내 눈앞의 환각인지도 모른다. 지금은 밤이 아니고 대낮인지도 모른다.

진영은 머리를 꼭 감싼 채 집을 향하여 달음박질을 쳤다.

밀짚모자를 쓴 냉치정수가 뛰어가는 진영의 뒷모습을 낚 없이 바라본다.

달무리에 둘러싸인 달이 불그스름했다. 비라도 쏟아질 듯이 몽몽한 더운 바람이 불어왔다.

진영의 어머니는 쌀을 팔러 온 종이 가고 난 뒤 백중날을 기다렸다. 백중날은 죽은 사람의 시식(施食)\*을 하기 때문이다.

백중 전날에 어머니는 문수의 시진과 돈 이천 원을 가지고 절에 가서 미리 연락을 해두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는 달이 휘번해져자 진영이도 파실 바구니를 들고 어머니를 따라 집을 나섰다.

B국민학교를 돌아 약간 비탈진 길을 올라서니 이내 절 안마당이 보였다. 백중맞이를 하느라고 한창 바쁜 절에는 동리 아낙네들이 와서 일을 거두고 있었다.

큼직한 몸집을 한 주지승이 어머니를 보고 반색한다.

“아이구 정성도 지극해라. 이렇게 일찍부터……”

어머니는 눈에 손수건부터 가져간다.

“시님, 우리 아이 찬도 좀 잘 시켜주세요. 부탁입니다. 너무 가엾어  
서……”

꽃물을 쥘다. 어제저녁에 실컷 어머니의 시름을 들었을 주지승은  
세삼스럽게 그 말이 탐탁해질 리가 없다. 주지승은 극히 사무적으로,

“그런데…… 첫째로 하겠다던 서장 부인이 아직두 안 오시니 어떡  
하냐?”

잠시 생각에 잠긴다.

무슨 서정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절에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손님  
인 모양이다. 어머니는 비굴한 웃음을 띠면서 주지승을 쳐다본다.

“시님, 그만 우리 아이일 먼저 해주세요.”

주지승은 환동안 어머니를 보고 있더니,

“……그렇 백부터 헤드릴까……”

주지승은 그렇게 걱정하고 마침 지나가는 중을 부른다.

“아우님!”

아우님이라고 불린 여승은 돌아본다. 얼굴이 쪼글쪼글 쪼그라진  
그 여승은 아직도 팽팽한 주지에 비하여 훨씬 더 늙어 보인다. 게다가  
가 표정마저 앙상하다.

“어제저녁에 이천 환 낸 분인데 아직 서장택이 안 오시니 우선 하  
나라도 먼저 끝내지요.”

주지의 말투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늙은 중은 대담 대신 진영의 모녀를 훑어보더니 돈의 액수가 심에  
치지 않은 듯 무뚝뚝하게 그냥 가버린다.

진영과 어머니는 범당 앞에 서로 등을 보이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바리다보이는 산미루에 막 해가 쏘고 있었다. 그 영롱한 아침을 진  
영은 벽화(壁畵)처럼 감동 없이 대한다.

진영은 최저의 돈을 내고 첫째로 하겠다고 새벽부터 온 것이 얼마  
나 암척머리 없는 것이었던가를 생각한다.

젊은 중이 공양을 들고 온다.

“여보세요, 그 키 큰 시님은 안 계시나요?”

어머니는 쌀을 팔러 온 중을 두고 묻는 말이다.

“그이는 절에 잘 붙어 있지 않아요.”

젊은 중은 간단히 대답하고 범당으로 들어간다.

곧 시식불공이 시작되었다. 진영은 늙은 중이 묵탁을 두드리며 조  
는 듯한 염불을 시작하자 적잖게 실망했다. 몸집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찬 주지승이 아니었던 것이 섭섭했던 것이다. 기왕이면 곳 잘하  
는 무당에게 부탁하고 싶을 그런 기분이었다.

중은 염불을 하면서 열심히 절을 하고 있는 어머니 옆에 멍청히 서  
는 진영을 흘겨본다.

보리빛갈의 원피스를 입은 진영의 허리는 말할 수 없이 가느다란  
다. 핏기 없는 얼굴에는 눈만 검었다.

중은 여전히 마땅치가 않아 진영을 흘겨본다. 진영은 중의 눈길을  
느낄 적마다 채죽을 당한 듯이 어색하게 옆드려 절을 했다. 진영은  
중의 마음이 염불에 있지 않고 깃발에 있다는 속담같이 지금 저 중의



마음도 염불에 있지 않고 절에 와서 예배를 하지 않는 내 태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진영은 중과 무슨 대결이라도 한 듯이 점점 몸이 피로해지는 것이었다.

얼마 동안이 지난 것 같았다. 주지승이 씨근덕거리며 법당으로 쫓아왔다.

“어우님, 빨리 하세요. 지금 막 서장택이 오셨구려. 대강대강 하세요.”

주지는 법당 구석에 걸어둔 먹물 들인 모시장삼을 입으며 서두르는 것이었다. 늙은 중은 불전(佛前)에서 영전(靈前)으로 자리를 옮긴다. 제대로 불경이나 끝마쳤는지 의심스러웠다. 아까 공양을 나르던 젊은 중이 이번에는 널따란 그릇을 들고 들어온다. 그는 진영의 모녀를 돌아다보며 영가(靈架) 앞으로 오라고 손짓한다.

진영은 문수의 사진이 놓인 앞에 가서 앞드렸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것이었다. 문수의 손길이 생생하게 마음속에 느껴진 것이다.

“문수야, 많이 많이 먹어라. 불쌍한 내 자식아!”

진영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이처럼 슬프게 들은 적은 없었다. 어머니는 항을 꿸고 은행에서 갓 나온 듯한 뺨뺨한 십 환짜리 스무 장을 영전에 놓았다. 진영도 일어서서 항을 꿸었다. 그리고 돌아섰을 때 중이 목을 길게 뽑아가지고 영전에 놓인 돈을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뺨뺨한 새 돈은 흡사 백 환권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진영은 송구스런 생각에서 고개를 푹 수그리고 말았다.

그릇을 들고 온 젊은 중이 돈을 옆으로 밀어놓으면서 시무룩하게,

“영가 노자가 너무 적군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지, 동무하고 쓰고 놀다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진영은 머릿속에 피가 팍 차오는 것을 느낀다. 돈을 그렇게밖에 준 비하지 못한 어머니의 인색함을 심히 저주하는 마음이었던 것이다.

젊은 중은 들고 온 그릇에다 영가 앞에 차린 음식을 조금씩 덜어놓는다. 나물, 떡, 지반, 과일, 그렇게 차례차례 손이 간다. 마침 먹음직스런 약과에 손이 닿자 별안간 목탁을 치던 중이,

“그건 그만두구려!”

머락 소리를 지른다. 젊은 중은 진영을 힐끗 보면서 흥흥히 바깥 식돌(施食石)로 음식을 버리러 나가는 것이었다.

진영은 기가 막혔다. 처음부터 거래임에는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이쯤 되면 어지간한 감정도 폭발 아니할 수 없었다. 진영은 양손으로 얼굴을 꼭 쥐었다. 울음이 터진 것이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역정을 그는 울음 속에다 내리뒤흔었다. 울음 속에 자기 목에 매달리던 문수의 손길이 느껴진다. 미칠 듯한 고독과 그리움이 치솟는 것이었다.

음식을 버리고 돌아온 젊은 중은 과실을 모으며,

“이걸 가져가셔야지. 보자기를……”

하며 어머니를 돌아본다. 진영은 새빨강개 총혈된 눈으로 젊은 중을 노려보며

“일없소. 그만두세요.”

진영의 목소리는 악을 쓰는 것 같았다. 일을 다 마치고 법당 밖에 나온 늙은 중이,

“왜 가져온 걸 안 가져가슈.”

쳐다보지도 않는 진영이 대신 어머니가,

“뭐 그걸……”

진영이 얼굴을 어머니는 숨어 본다. 늙은 증은 침을 꿀꺽 삼키며,

“돼 같으면 증이 먹고 살겠슈.”

진영의 눈이 번득였다.

“조반을 지셔야 할 텐데 너무 일러서 찬이 제대로 안됐어요. 좀 기다리실까요.”

젊은 증은 그런 말을 남기고 가버린다.

진영은 법당 축들 위에 주저앉았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어지요” 하던 말이 되살아온다. 물론 처음부터 거래였다. 그렇다면 화폐의 액수에 따라 문수에 대한 추모의 정이 계산된단 말인가. 진영이 그러한 울분에 젖어 있을 때 말쑥하게 차려입은 그 서장의 부인인 듯싶은 젊은 여인이 주지승에게 인도되어 법당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잠시 후 불경 읽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밖으로 흘러나왔다. 잠들었던 부처님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귀를 기울일 만한 땃속에서 밀어낸 목소리였다. 진영은 뻘뻘 일어선다.

“어머니, 그냥 갑시다.”

밖을 얻어먹으려 절에 온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냥 걸어가는 진영을 붙들지 못할 것을 아는 어머니는 뜰에 서성거리고 있는 늙은 증에게,

“그만 갑니다, 시남.”

“이크, 이침이나 접수시지…… 갈려오?”

꾼이 잡지는 않았다. 그는 절문까지 전승을 하며,

“당신네들 같으면 증이 먹고 살겠슈.”

진영은 울화보다 어치구니가 없었다.

내리막길에서 잠초를 뽑으며 진영은 말없이 울었다. 어머니도 떨어 진 낫선 여편방에다 문수를 혼자 두고 가는 것만 같은 생각이 저꾸 드는 것이었다.

진영은 불명어리 같은 이마를 짚는다.

한여름 내내 진영은 앓았다. 애당초 구허 경미하게 발생한 폐결핵이 전연 방치되었기 때문에 점점 악화되어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병까지 연속적으로 병발하는 것이었다. 친물만 마셔도 배탈이 났다. 눈병이 나고 입이 부르트고 하기가 일쑤였다. 앓다 못해 귀까지 앓았다. 그리고 여러 해째 건드리지 않고 둔 충치가 일시에 쑤서 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욱신거렸다.

진영은 진실로 하나의 욱신이 헤쳐되어야 하는 과정 속에서 몸서리치는 무서움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쟁쟁하게 내리쬐이는 햇볕 아래늘 어진 한 머리의 지렁이 같은 생명이었다.

이러한 욱신과 더불어 정신도 헤쳐되어야 하는 과정 속에 진영은 있었다.

밤마다 킁기에 울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산이, 언덕이, 집이 무너지는 소리, 산신이 바스라진 유리조각이 수없이 날아와서 얼굴 위에 박히는 환각, 눈을 감으면 내장이 터진 소년병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 아이의 얼굴이, 문홍빛, 노랑빛, 파랑빛, 마지막에는 시꺼먼

빛, 그런 빛깔로 차테차테 뒤덮여가면은 드디어 무한정한 공간이 안  
게처럼 진영의 주변을 꼭 싸는 것이었다.

소리와 감각과 색채, 이러한 순서로 진영의 신경은 케도에서 무너  
져나갔다.

진영은 그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내버려두었던 몸을 끌고 H병원  
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도 일주일이 멀다고 그만 가는 것을 중지하  
고 말았던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은 생활비에나 써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러  
나 직접의 동기는 외국계 주사약의 빈 병들을 팔아버리는 장면을 본  
때문이다.

Y병원에서는 주사약의 분량을 숙였고 S병원은 영터리였다. 그리  
고 H병원에서는 빈 약병을 팔았다.

진영은 간호원이 빈 병을 헤아리고 있을 때 짐작으로 가짜 주사약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H병원만이 빈 약병을 파는 것은 아니  
다. 또 그 빈 병만 하더라도 반드시 가짜 약병으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잉크병으로, 물감병으로, 혹은 후춧가루병으로 흔히 이용  
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 거리에는 가짜 주사약이 범람하고 있는 것  
이다. 상인들은 태연히 그런 가짜를 진짜 속의 진짜라고 나팔 불었  
다. 진영은 그것을 생각하니 인술이라는 권위를 지닌 의사가 그런 상  
인 따위들 같이서 신뢰감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물론 아무리 대수롭  
잖은 빈 병일지라도 그것은 전연 그 의사의 소유이며 처분의 자유는  
그의 기본 권리에 속한다. 그래도 진영은 그의 기본적 권리보다 무수  
히, 마치 페스트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蔓延되어가는 가짜 주사약 생

각만 하는 것이었다.

해머리기의 꽃이 씨앗을 안았다.

며칠 전에 이주머니가 원금만은 돌려주겠다고 약속대로 마지막 담  
은 만 원을 가지고 왔다. 이것으로 원금 십만 원은 다 받은 셈인데 조  
금씩 조금씩 보내준 돈은 지금 집에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주머니는 돈을 주고 난 다음 가려고 일어서면서 문수의 위폐를  
절에다 모신 데 대한 불만을 말했다. 그리고 왜 그런 우상을 숭배하  
느냐고 나무라는 것이었다. 진영은 어느 것이면 우상이 아니냐고 말  
하고 싶었으나, 곧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버리고 그저 멍멍히 아  
주머니를 쳐다보았던 것이다. 자기 자신이 지닌 모순을 설명할 도리  
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다.

추석날이었다.

진영은 어머니가 절에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도리어 정성 들여  
서 사다놓은 실파를 바구니에 차곡차곡 넣어주었다. 배·사과·포  
도·밤·대추, 먹음직한 과자도 서너 가지 있었다.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문 앞에서 바라보고  
섰던 진영은 “당신네 같으면 종이 먹고 살겠수” 하던 말이 문득 생각  
났다. 문수가 먹을 것을 종이 먹다니, 아깝다. 밭살스럽다. 그러나 진  
영은 다음 순간 부끄럼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러한 파렴치한 생  
각을 내가 왜 했던고—

진영은 문을 열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울고 싶었고, 외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산에는 깨떡지만한 천막집이 군데군데 서 있었다. 들꽃 한 송이,

나무 한 뿌리 볼 수 없는 이곳에는 벌써 하나의 빈민굴이 형성되어  
말이 산이지 이미 산은 아니었다.

짜짜히게\* 권 샴터에서 물을 길는, 거미같이 가는 소녀의 팔, 천막  
집 속에서 내미는 누렇게 뜬 얼굴들—진영은 울고 싶고 외치고 싶  
은 마음에서 집을 나와 산으로 올라온 자기 자신이 여기서는 차라리  
하나의 사치스런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영은 한참 올라와서 어느 커다란 바위에 가서 앉았다.

산등성이에서 바라다보이는 시가(市街)는 너절했다. 구름을 이룬  
곳마다 집들이 마치 진땀물 모양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 속에  
는 절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서양적인 것, 동양적인 것이 과  
도기처럼 있었고, 조화를 깨뜨린 잡다한 생활이 그 속에 있었다.

이러한 도시 속에 꿈이 있다면 그것은 가로수라고나 할까? 보릿빛  
이 서린 먼 산을 스쳐가는 구름이라고나 할까.

진영은 알뜰한 턱을 킁다.

풀벌떼처럼 도시의 소음이 콧가에 울려오는데 고급승용차가 산장  
이 있는 고개로 미끄러져가고 있었다. 산등성이에서 그것을 보니 별  
것이 아닌 한 마리의 딱정벌레라는 생각이 든다. 꼬물꼬물 기어가는  
딱정벌레라는……

진영은 새삼스레 시방을 두리번거렸다. 무의미하기 짝이 없는 충  
동들이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진영은 이유 없이 자기를 다잡아보  
았다. 사실 그러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딱정벌레 같아서 어쨌  
단 말인가, 진땀물 같고, 가로수, 구름, 그래서—  
진영은 머리를 쓸어올린다.

모든 피로움은 내 속에 있었다. 모든 모순도 내 속에 있었다. 신도,  
문수의 손길도 내 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곳에도 실재 있지는 않았다. 나는 창녀처럼 절  
조 없이 두 신전에 참배했다. 그리고 제물과 돈을 바쳤다. 그러나 그  
것 역시 문수와 나의 중계를 부탁한 신에게 주는 수수료였는지도 모  
른다. 그 수수료는 실재에 있어서 몇 끼의 끼니가 되었다. 결국  
나는 나를 속이려고 했다. 문수는 아무 곳에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진영은 이마 위에 흘러내리는 슬한 머리를 다시 쓸어올린다. 파르  
스름한 손이 투명할 지경이다.

신비라고, 예고라고, 꿈 아니야 그것은 우연의 일치였지. 문수의  
죽음, 그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인위적인 실수 아니었던가. 인간은  
누구나 나이 들면 죽는다고? 물론 죽는 게지, 노쇠해서 죽는 거  
지…… 절령 이이가 그때 이미 죽을 목숨이었다고 치자. 그래도 그  
렇게 죽이고 싶지는 않았다. 도수장의 망어지처럼…… 사람을, 사람  
을 좀 미워해야겠다.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신을 왜 생각은 해.  
아니 이끼는 없다고 하고선…… 아니야 모르겠어. 사람을, 사람을  
좀 미워해야겠다. 반항을 해야겠다. 모든 약탈적인 살인자를 저주해  
야겠다.

진영은 숲이리도 마신 사나이처럼 두서도 없는 혼잣말을 언제까지  
나 중얼거리고 있었다.

진영의 해사한\* 얼굴에 그들이 진다. 한없이 높은 가을하늘에 구름  
이 지나가는 것이었다. 시가에는 마치 색종이를 찢어놓은 것같이 추  
석 치레가 오가고 있었다.

진영의 옆에 들뜬 눈이 그것을 쳐다보며 일어난다. 그에게는 이미 반항정신도, 아무것도 없었다. 험악한 마음의 미로(迷路)가 끝없이 눈앞에 뻗어 있을 뿐이었다.

진영은 버릇처럼 머리를 쓸어들리며 산을 내려온다.

천막집에서 내미는 누렇게 뜯 얼굴들, 진영은 또다시 이곳에 있어서는 내 자신이 차라리 하나의 사치스런 존재라는 이끼의 누우침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음력설이 임박해진 추운 날, 길월동 아주머니가 목도리를 폭 뒤집어쓰고 찾아왔다. 월일인지 몸가짐이 평소보다 좀 산란해 보였다.

“나 의논할 게 좀 있어서 왔는데…… 참가가 막혀……”

“……?”

아주머니는 말을 꺼내기가 거부한 듯이 가만히 앉았다가,

“저, 저 말이야, 돈을 좀 빌려준 사람이 죽었구나, 어떻게 하지?”

진영은 의심스럽게 아주머니를 쳐다본다.

“지난 오월달에 가져간 돈을 이자 한 푼 못 받고 그만……”

진영의 변해가는 표정을 보고 아주머니는 입을 다물어버린다. 오월이면 진영이 켄돈을 찾을 달이다. 그리고 게가 끝나는 달이기도 했다. 그것뿐이 아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켄돈을 받으려고 꿈이 달아져 다니던 사람이 몇 명 있었던 것이다.

“빌려준 돈이 얼마나 돼요?”

진영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오십만 원이야.”

진영은 속으로 놀랐다. 게를 해서 빚만 뒤집어쓴 줄 알았는데 그런 대금의 비밀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진영은 차갑게 아주머니를 쳐다본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지식도 남편도 없는 내겐 그것만이 남겨진 것이었어. 내들 얼마나 돈을 떼였니. 실마 내가 잡되면 빚이야 갚고 살겠지만 그때 그 돈마저 내주게 되면 난 아주 영영 파멸이지.”

진영은 어디 밑천 든 장사였더냐고 오금을 박어주고 싶었다.

아주머니는 한참 만에 눈물을 닦고 일의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한 다. 그 내용인즉 죽은 사람은 돈을 쓴 회사의 전무였으며 오월달에 빌려간 오십만 원의 이차라고는 한 푼도 받아본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불인해진 아주머니는 전무에게 원금을 뺏아달라고 졸랐으나 영내놓지 않아서 생각다 못해 같은 신자에게 의논을 했더니 그의 남편인 김씨가 일을 봐주겠다고 하기에 일을 맡겼다는 것이다. 그 김씨란 사람이 수단이 비상하여 마침내 사장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받게 되고 그 며칠 후에 전무는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라 한다. 사장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이었으나 웬 까닭인지 김씨란 사람이 약속어음을 도무지 주지 않고 무슨 협잡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의심한다거나 비위를 거슬러놓는다면 돈 준 사람도 없는 지금, 여자인 내가 어떻게 사장이란 사람에게 받아낼 수도 없고, 이렇게 속이 탄다고 하면서 아주머니는 가슴을 치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진영은,

“대관절 그 전문관 사람을 어떻게 알고서 그런 대금을 주었어요.”

“저…… 저 왜 그 상배 있잖아, 그 상배 아버지야.”

“뭐예요? 영세받았다던 상배 학생 말이에요.”

이주머니는 얼굴이 빨개진다. 진영은 기가 딱 막혔다. 그리고 보니 사업 때문에 상배 아버지가 서울로 오게 될 거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김쪽같이 종교를 이용했군요.”

이주머니는 진영의 눈길이 부신 듯이 눈을 내리간다.

“글쎄 지금 생각하니 모두가 계획적이었어. 영세받은 것만 해도……”

“신용보증으로 종교보다 더 실한 게 있어요?”

이주머니는 비꼬는 진영의 말에 풀이 죽는다. 진영은 풀이 죽는 이주머니로부터 눈을 돌렸다.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믿고 돈을 준 이주머니, 신자이기 때문에 믿고 일을 맡긴 이주머니, 단순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영은 다시 이주머니를 쳐다보았다. 그의 약점을 추궁할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어떡하실 작정이예요?”

“글쎄 말이다. 그래서 의논이지.”

“제 생각 같아서는 김씨가 일은 봐주되 어음은 이주머니가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음을 찾아간다고 일을 안 봐주면?”

“그땐 벌써 그에게 만 아성이 있었다고 봐야지요.”

“그럼 김씨가 일 안 봐줄 적에 내가 좀 협조해줄 수 없을까? 여자 혼자서 아무래도 호락호락해 보일 것 같아……”

이주머니의 말투는 애원이었다.

“글쎄……”

그런 일에는 이주 딱 질색이었다. 그러나 진영은 약점을 안 뒤에 거절을 헤버리는 것이 무슨 악마 취미 같아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같이 적도 가지요.”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점심을 차려왔다. 점심을 먹으면 서 이주머니는 한결 마음이 후련해졌는지 여리 기지 집담을 꺼냈다.

“글쎄 돈이 있어도 문제야. 이젠 영 접이 나서 남 줄 생각이 없어.”

진영은 무표정하게 밥을 삼키고,

“아무 말씀 미시고 돈 찾거든 장사하세요. 체면이고 뭐고…… 저 도 자분이나 장만해서 장사할래요.”

“너야 뭐 취직하면 되지.”

“취직이 그리 쉬운가요? 허다 안되면 거리서 뺑이라도 구워 팔아야지요.”

“너야 공부 많이 했으니까 할려면 취직 못할 것 없잖아. 단 장작 장사라도 해야겠어. 그러나 돈벨기론 계가 제일이야. 힘 안 들고……”

이주머니는 손길을 놓고 성냥가지로 이빨을 찌시면서 말한 것이었다.

진영은 아무런 그렇겠지, 그런 배행이면…… 허다 말고 이주머니의 눈을 들여다본다. 아무런 악(惡)의 그늘도 없는 맑은 눈이었다.

“아무튼 돈을 벌어야 해. 돈이 제일이야. 세상이 그런걸……”

이번의 말투에는 어느 시인지 모르게 저지른 자신의 일에 대한 짜증과 반발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럼. 옛날 숙담 말마따나 자식을 앞세우고 가면 배가 고파도 돈을 지니고 가면 든든하다고 안하던가!”

어머니의 맞장구다.

진영은 가벼운 험기증을 느낀다. 시야 속에서 그들의 얼굴을 지워 버리듯이 얼른 고개를 돌린다.

“형님, 이래서 천당 가겠습니까? 돈, 돈 하다가 호호……”

이주머니는 까르르 웃으며 일어서서 장감을 걷는다.

진영은 그 웃음 속에서 또 불안과 그녀에 대한 반발을 느낀다. 진영은 고개를 돌려 이주머니를 쳐다보았다. 역시 괴롭고 고독한 사람이구나—

이주머니가 가벼워진 뒤 진영은 자리에 쓰러졌다. 숨처럼 몸이 풀어진단다.

진영은 방 속에 피운 구멍탄 스토브에서 가스가 분명히 지금 방에 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 안에 가득히 가스가 차면 나는 죽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새 진영은 괴로운 잠이 드는 것이었다.

내장이 터진 소년병이 꿈에 나타났다. 진영은 꿈을 깨려고 무척 애를 썼다.

“모래가 멍절인데 절에도 돈 천 원이나 보내야겠는데……”

어렴풋이 들려오는 어머니의 말소리다. 진영은 몸을 들치며 눈을 떴다.

“귀신이나 사람이나 매한가지인데…… 남들은 다 제 몫을 먹는데 우리 문수는 손가락을 물고 애미를 기다릴 거다.”

잠이 완전히 깬 진영은 벌써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영은 외투와 목도리를 입고 마루에 나와 그것을 몸에 감았다.

진영은 부엌에서 성냥 한 갑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오랫동안 마음속에서만 버르던 일을 오늘이야말로 해치울 작정인 것이다.

진영은 눈이 사박사박 밝히는 비탈길을 걸어 올라간다. 진영은 고슴도치처럼 바짝 털이 솟은 자신을 느낀다.

목도리와 외투자락이 바람에 나무긴다. 그러면은 잡나무 가지 위에 앉은 눈이 외투깃에 날아내리는 것이었다.

진영은 절로 가는 것이다.

진영이 절 마당에 들어갔을 때 “당신네들 같으면 종이 먹고 살겠수” 하던 늙은 종이 막 승병에서 나오는 도중이었다. 절은 괴괴하니 다른 인기척은 없었다.

진영은 얼굴의 근육이 경련하는 것을 의식하며 종 옆으로 다가선다.

“저 말이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시골로 가는 데 아이 사진과 위패를 가지고 가고 싶어요.”

고개를 꼭 숙인 채 진영은 나지막하게 말한다. 허영개 풀어진 눈으로 진영을 쳐다보면 종이 겨우 생각이 난 모양으로,

“이사를 하신다고요? 그럼 어떠우. 그냥 두구려. 멍절에 우편으로라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지.”

진영은 숙인 고개를 살짝 세우더니 옆으로 휙 돌리며,

“참견할 것 없어요. 사진이나 빨리 주세요!”

쏘이불이다. 증은 좀 어리둥절해하더니 무엇인지 모르게 종알종알 씨부렁거리며 범명으로 간다.

이윽고 증이 문수의 사진과 위폐를 가지고 나오자 진영은 그것을 빼앗듯이 받아들고 인사말 한마디 없이 절문 밖으로 걸어나간다. 화가 난 증은 진영의 뒷모습을 겨누어보다가 종알종알 씨부렁거리며 뒷간으로 간다.

진영은 증에게 화를 낸 것은 아니었다. 다만 진영으로서의 빨리 사진을 받아가지고 절문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초조했던 것이다.

진영은 비탈길을 돌아 산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면서 진영은 어리저리 기웃거리린다. 어느 커다란 바위 뒤에 눈이 없는 마른 잔디 옆에 이르자 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리하여 문수의 사진과 위폐를 놓고 물끄러미 한동안 내려다본다.

한참 만에 그는 호주머니 속에서 장냥을 꺼내어 사진에다 불을 그어댄다. 위폐는 이내 사라졌다. 그러나 사진은 타다 말고 불꽃이 찾아진다. 진영은 호주머니 속에서 휴지를 꺼내어 타다 마는 사진 위에 찢어서 놓는다.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다.

사진이 말끔히 타버렸다. 노르스름한 연기가 차차 가늘어진다. 진영은 연기가 바람에 날려 없어지는 것을 언제까지나 쳐다보고 있었다.

“내게는 다만 쓰러린 추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무참히 죽어버린 추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진영의 꺾은 듯 고요한 얼굴 위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거울하늘은 매몰스럽게도 맑다. 잠목 거지에 얽힌 눈이 바람을 타고 진영의 외투깃에 날아내리고 있었다.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다.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  
진영은 종알거리며 잡나무를 휘어잡고 눈 쌓인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다.

『현대문학』 32호(1957. 8) : 『박경리 문학전집』 19권(지식산업사 1987)



이지요. 딱지딱지한 것이 참 많이 들끓고 있어요. 몇 겹으로 더께가  
얹어 있지요. 도리어 험벗은 것은 당신이지요. 당신은 새빨간 몸뚱이  
만 남았어요. 모두 털어버리고 나무나무 알맹이 알몸뚱이만 남아 있  
어요.”

그녀는 피이 하듯이 웃고 말했다.

“이주 벽창호군요.”

저편엔 외국인 부부 기자가 여전히 가지런히 붙어 서 있었다. 남편  
은 역시 고볼통을 물었으나 돌이빠는 기척이 없고, 아내는 그 남편을  
따뜻하게 정이 담긴 눈길로 건너다보고 있었다. 어느 인방에 단들이  
미주 앉아 있거나 한 것처럼.

안경집이와 그 ‘누님’께서는 오늘은 다소곳하게 머리를 빗대고 정  
말 오랜만에 만난 오랍누이\*이거나 한 것처럼 수군대고 있었다. 스  
피커 소리가 왕왕 울렸다. 그녀는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여기서  
만날 때 으레 짓는 그 경계와 방어 태세가 껴묻은 표정으로 피해서  
갔다. 그 뒷모습을 건너다보면서 진수는 생각했다.

‘기집애, 조만하면 쓸 만한데, 쓸 만해.’  
혼자 쓸쓸하게 웃었다.

『시상계』 92호(1961. 3): 『이호철 중·단편소설』(세미 2001)

## 부시장 부임지로 안가다



문이 열리자 마누라는 화닥닥 일어서서 나왔다. 도시락 보자기를  
받아들며,

“오늘 학교에서는 무슨 일 없었수?”

하고 다짜고짜 성급하게 물었다. 불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리디오 소리가 혼자 왕왕거리고 있었다. 구들이 높고 천장이 낮은 좁  
은 방 안이 훌쩍 들여다보였다.

“무슨 소리야?”

“..... 잠으러 왔었어요.”

“뭐? 어디서?”

“군인 셋이 왔었어요.”

그다음은 들으니마나다. 규호(圭鏞)는 갑자기 두 다리가 휘뚱거리  
고 온몸이 훌렁훌렁헤졌다. 그 서늘에 코르덴\*바지 밑으로는 방귀가

뿡 하고 나갔다. 여느 때 같으면 또 주먹으로 남편의 어깨를 치면서 까르르대고, 손으로 쿡구멍을 틀어막는 시늉을 했을 구경꾸러기 마누라도 오늘 저녁은 그럴 경향도 없는 모양으로,

“어서 피하세요.”

규호는 일단 영겨주춤 텃마루에 걸터앉았다.

저 아래, 거리의 소음이 이스라하게 밀려 올라오고, 건너편에는 짙숙한 오월 저녁의 바다가 안개 기운에 잠겨 있다. 안개 속에 부두의 불빛은 행하게 부풀어서 제각기 공간에 경중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뽕뽕 좌르르, 뽕뽕 좌르르, 항상 부두 전체의 운곽에서 들려오게 마련인 그 육중하고 느린 저음이 오늘 저녁따라 들들렸다. 꼭 하늘만큼 넓은 삼태기가 규칙적으로 아금아금 지간을 내리쬐고 있는 것 같은 소리다. 무슨 소리가 저런 모양으로 들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더더구나 안개 탓일까, 오늘 저녁따라 들들리는 그 소리를 중심으로, 혁명이라는 농축된 실감이 사방의 송곳이 되어 달려들고 있었다.

“아, 어서 피하라니까요. 뭘 그렇게 멍청히 앉았수.”

마누라는 맨발로 서서 어린애를 앞으로 돌려 안고 젖을 물렸다. 규호는 호주머니를 뒤쳐서 담배 꽂다리에 불을 붙이며,

“대관절 몇 시에 왔었기?”

“조금 전이요. 삼십 분쯤 되었어요.”

하고는 다시 한 손을 앞으로 내치으며,

“아이, 그 담뱃불 끼요. 근처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고 제빠르게 지껄이고는 짐 좌우를 날렵하게 살폈다.

“뭣? 짐 근처에?”

규호도 급하게 담뱃불을 도로 끄며 화닥닥 일어섰다.

“돈 좀 있지?”

배 안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마누라는 다시 어두운 방으로 달려들어가 험하게 사람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지천 한 움큼을 쥐고 나왔다.

규호는 곧 그것을 아무렇게나 갈라서 이 호주머니 저 호주머니에 나누어 넣으며 문 쪽으로 나섰다.

“어디에 가 있으려우?”

“클쎄 나가면서 생각을 헤아리지.”

“이깁 전라도에 농사지으러 갔다구 했어요.”

“.....”

“허여간 무슨 수루래두 전화 걸어요. 요 앞 집화상 짐으루. 집화상 전화번호는 아시지요?”

“알구 있어.”

“그러구, 아이 판 준비 머 없어두 되나. 아이, 여보, 꼭 전화 걸어요.”

마누라는 뒤에 서서 징징대고 있었다.

규호는 빠른 걸음으로 내리받이를 내려와 길이 꺾이는 목에서 돌아보니 마누라의 모습은 어둠 속에 어슴푸레하게 보이고 그 뒤로는 남작한 집채가 보였다. 집화상 앞에는 불빛이 환하였다. 그 불빛이 비치고 있는 속을 건너뚫듯이 훌쩍 뛰었다. 그렇게 달리기 시작하였다.

어제는 지리선생이 접혀졌다. 여느 때는 무뚝뚝하지만, 술만 마시면 아금아금 미시다가 치름 이눔도 죽일 놈, 저눔도 죽일 놈, 같이 술

미시는 사람이 아니면 다 죽일 놈이 되고, 함상국은 얼굴로 연거푸 술잔을 들고, 드디어 취하면 접시를 두 손에 들고 쪼이나쪼이 쪼이나 쪼이 곰사슴을 잘 주는 영감님이다. 빨갱이라면 치를 떨면서도 포원들의 권의 문제라도 나오면 세계 각국의 통계 숫자까지 일일이 들어 가며 항상 살기 먼 표정을 짓던 영감님이다. 어제 직원실에서 출두 명령을 받고 나갈 때는 그 누구에게도 간다는 인사말 한마디 없이 입술만 지그시 물고 있었다. 아직 제 소신에 추호나마 요동이 없다는 표정이었다.

“박선생 몸조심하십시오.”

옆으로 가서 규호가 속삭이니까 힐끔 돌아다보고는 통명하게 외면  
을 하고,  
“강선생이나 조심하십시오.”

하였다.

그에게 저녁에는 생물선생과 고학년 수학을 맡은 권선생이 잡혀갔다. 생물선생은 출두 명령을 받지 생글생글 웃으며 이 사람 저 사람을 불들고는 무슨 자랑거리나 생긴 듯이,

“자아, 이제부터 나도 비로스 사람대접을 받는 모양인데, 이거 축주(酬酒)라도 한잔 나누어야 할 건데, 미안하외다, 미안하외다, 미안미안.”

하고 간들간들 손까지 흔들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건사를 떨고 있었다.

수화선생 권선생은 그러는 생물선생을 아니꼬운 듯이 건너다보며 책상 위의 서랍 구석구석까지 깨끗이 정리를 하고 있었다.

“아니, 권선생도 걸렸소?”

하고 규호가 다가가자 그는 이상하게 발끈해지며,

“아니, 안 걸리는 게 이상하지. 나두 강선생처럼 상이군인이 아닌 다음에야.”

하며 규호가 상이군인이라는 것을 빈정대지 않는다. 사실 권선생은 조금 진짜배기 같고 약간 수상해 보던 사람이었다. 적어도 지리선생이 순수한 의문의 그것이었다는 점을 두고 거기에 비추어 보아서 말이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규호 차례였다. 학교로 오지 않고 집으로 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먼은 신성한 학원의 분위기를 고려해서 약간 기술적인 방법을 취하였을 것이다.

어느새 규호는 내리밭이를 마구 뛰며 내려가고 있었다. 어둠과 게다가 울퉁불퉁한 길에서 발 디딤이 고르지 않고, 그러나 용하게도 넘어지지는 않았다. 흡사 큰 꿈이 뛰어 내려가듯 뚜껑터뚜껑터 마를 명이 울리었다.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자 철철 땅이 흐르고 금방 누가 뒤에서 쫓아 오거나 하는 듯이 조바심이 일고 급해지면서 발놀림은 가속도적으로 빨라졌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개새끼들, 개새끼들 이렇게 일정한 누구를 짚은 것은 아닌 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비로스 규호는 다시 걷기 시작하며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훑었다.

바로 근처에서는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하고 라디오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러자 규호는 화닥닥 놀라며 또다시

달리기 시작하였다. 달리면서도 ‘웁은 소리지, 웁은 소리고말고’ 하고 스스로 새삼 확인이나 하듯 이렇게 중얼거렸다. 어느새 다시 또 걷고 이마의 땀을 이면에는 손수건으로 닦아내고 뒤쪽을 훌끔훌끔 돌아보곤 하였다. 다시 슬금슬금 뛰었다 말았다 하며 어두운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그러면서 정신은 막연히 일정한 방향으로 농축되어 가고 있었다.

큰길에 나서자 규호는 잠시 제자리에 섰다. 초저녁 거리의 그 길은 소용돌이가 흐르고 있었다. 땀에 흥건히 젖은 호주머니 속의 지전 몽치를 집히는 대로 꺼내보고는 한결 정신이 말짱해지며 비죽이 쓴웃음이 비어져 나왔다. 어느 때는 요놈의 것 한 장만 달래도 극성을 피우던 마누라였는데 하고 제법 한가한 생각을 잠시 하며 담배 한 갑을 사서 한 대를 빼어 물었다. 순간, 정말 오기는 온 것이었을까, 마누라가 지레 겁을 먹고 잘못 알았던 것이나 아닐까, 아무리 원, 금한 고비 이기로서니 퇴역 육군 중위인 자기를 잡아갈 이유라는 것이 무엇일까 따져들었다. 그러나 마누라가 잘못 보았을 리는 없다. 마누라인들 퇴역 육군 중위인 자기를 두고는 안심하고 있었을 터이니까. 그러나 하여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나온 것이 실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규호는 담배를 피나문 채 중절모지를 바로 쓰려고 손을 가져가다가 맨머리가 잡히자 피시시 웃었다. 금한 길에 모자까지 툃미루에 놓고 그냥 나온 것이다. 맨머릿바람으로 그 내리번이를 뛰어 내터왔을 자기가 새삼 우습게 떠올랐다. 그러나 중절모를 썼다 해도 우습기는 메일번이다. 마흔이 가까운 놈이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캄캄한 속의

울퉁불퉁한 좁은 길을 뛰어 내터왔을 그 모습. 규호는 앞뒤 조심스럽게 살피며 공중전화 박스 안으로 들어갔다. 추수 낫은 불빛이 차거운 느낌을 주었다. 급하게 다이얼을 돌렸다.

“여보세요.”

저편에서 집화상 아주머니가 나오자,

“저예요, 뒷집 영학이 아버집니다. 네? 술집에 있어요? 웬길요. 영학이 엄마 좀 불러주세요.”

속도 모르고 경기가 좋간다. 혁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웃집 한가운 데를 누비고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펼쳐 좋은 소리만 한다.

곧 마누라가 나타났다. 숨이 찬, 그러나 속삭이는 소리다.

“거기 어디예요?”

“거리야.”

“웬일이에요?”

“아니, 정말 오기는 왔었어요?”

“아, 왔으니까 왔대지요.”

“대관절 짚이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글쎄 누군 그걸 모르우.”

“더구나 상이군인 육군 중위이구.”

“.....”

“그래, 좀 자세히 얘기해보아, 와서 뭐래?”

“어이구우 답답이야.”

히고는 한결 목소리가 낮아지며,

“셋이 왔습디다.”

“그래서?”

“한 사람은 말뚝\*을 달았구 야전잠바 차림인데, 당신을 아는 듯이 이야기합니다만 벌써 서슬이 퍼렇진걸요. 그러구 둘은 헌병 완장을 달구 카빈총을 매구.”

“그래 어떻게 일흔체를 합니까?”

“글쎄, 이는 건 이는 거구. 틀림없어요. 아, 그만 눈치 모를까요요. 참, 나간 다음에 생각났는데 오늘 저녁은 범일동 집으로 가세요.”

규호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나오며 길가에 담배 꺾다리를 내던졌다. 범일동 집이라 하면 마누라의 언니 집이다. 동서 되는 사람은 해운공사에 다니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더 어리고 따라서 나이가 많은 손아래 동서가 이런 경우를 싫어지고 가면 하룻밤 재워는 주겠지만 어떤 열골이리라는 것은 볼을 보듯이 뻔하였다. 그리고 보니 영암암현일이 아닌가. 시계는 벌써 여덟시를 가리키고 있다. 라디오에서는 또 행진곡이 터져 나왔다.

무엇이 어떻게 됐다는 것인지 전혀 까닭을 알 수 없는 대로, 그리고 전혀 암투가 안 나는 대로 머릿속에서는 웬 광광광광 방망이 소리 같은 것만 빠른 속도로 두드려대고 있었다. 어느새 이까 킷머루에 앉아 들었던 부두의 육중한 저음은 이렇게 쾌속의 방망이 소리로 변해 있는 것이었다. 아무렇게나 근처 왜식집에 들리 정종과 참새를 시켰다. 급하게 서너 잔 들이켜고 다시 한길로 나왔다. 나와서야 서서히 술기운이 전신에 퍼지고 있었다.

근처 잡화상에서 또 진로 한 병과 오징어 두어 마리를 사 차고 전차를 탔다. 전차는 모로 휘퓰거리는 넓은 전차였다. 건너편에 꼭 일

본 부인처럼 생긴 중년 여인이 신문을 보다가 할멈 규호를 쳐다보고는 다시 신문지로 눈을 떨구고 있었다. 휘퓰거리며 달리는 전차 속에서 내다보이는 거리는 제법 혁명의 거리다운 거리였음 속에 잠겨 있었다. 이때쯤 라디오 소리가 왈각 부풀어 올랐다가는 찌렁찌렁거리는 전차 소리에 가려서 수그러지고 있었다.

젊은 구어선생인 서선생은 일본 게다\*를 끌고 명주옷 차림으로 나왔다. 온데 안경알 속의 눈이 어둠 속에서도 헤죽헤죽 웃고 있는 것이 알려졌다.

“아니 강선생 아니요? 이 밤중에 웬일로 우리 집엘 다 찾아오구.”

“왔어 왔어. 나도 그 생물선생 말마따나 이제부터 사람 구실을 하나봐.”

대뜸 서선생의 낯색이 달라졌다. 문간에 그냥 막이선 채 낮은 목소리로,

“오다니? 무슨 소리요?”

“잠으러 왔어”

“아니, 강선생이 무얼 했대구?”

“누군 무얼 해서 잡혀가나. 흑백이야 두었다가 보구, 당장은 혐의만 있으면 굶어 들이저는 셈일 테지.”

눈치가 집에 들이기를 게름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문 한가운데를 막고 서서 안기척을 살피며 어리둥절해 있다. 범일동의 큰동서 집이 라면 벌써 요런 꼴을 못 보고 핵 돌이켰을 테지만, 서선생의 요런 모습은 후일담이 재미있어질 것이라는 한가한 생각부터 든다. 원래 그런 후일담 종류가 많은, 새하얀 살결에 몸집이 작은 것처럼 마음도

갓난아기 주먹만하게 집으로 몽쳐진 위인이다. 규호는 일순 이 작차에게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정작 겁이 많은 서선생을 대하니 당사자인 자기는 약간 마음이 느긋해지는 것이 아닌가. 서선생이 또 무슨 핑계를 대기 전에 땀을,

“아니, 좀 들어갑시다. 못 들어갈 사람은 아녜요. 서선생까지 누굴 죄인 취급하려는 거요?”

비로소 서선생은 깨름한 낫새 그대로 문 앞을 비스듬히 비켜서며,

“주무시구 가려우?”

“네, 기왕 왔으니 하룻밤 좀 신세를 집시다.”

취한 채하며 내벨고는 앞장을 서 걸었다. 건재 한약 밑새가 코를 찔렀다. 서선생의 아버지는 폐 이름 있는 한의사에 건재 한약상이고, 그는 외아들이다.

과연 방 안은 지수성기해가고 있는 규호의 집에 비길 바가 아니었다. 서너 평은 살히 텅직한 방 안은 장판 구들부터 차악 가리앉아 있고 천장도 휘영청하듯 높을뿐더러 요즘 유행하는 텍스\*에 자개를 해 박은 이불장 양복장, 그 밖에 이것저것이 있을 자리에 척척 들어앉아 으리으리하였다.

곧 안면이 전혀 없지 않은 사모님이 성장\*을 하고 나타났다. 성장 이리저리만 집 안에서의 예사 처림인 모양이다. 과연 젊은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차림도 저쯤은 되어야 할 것이었다.

키피전이 놓인 소반을 내려놓고 제 남편을 활끗 한 번 쳐다보고는 금방 지리의 분위기를 저대로 짐작하며 그 분위기가 벌써 전염된 뒷 모습을 보이며 나가고 있었다.

“키피 무슨 키피. 우리 술이나 한잔합시다. 여기 쇠주병을 하나 빼 치구 왔는데, 인주도 이것이면 충분할 것이구.”

술잔이 몇 번 왔다갔다하자 비로소 서선생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금방 건장이 개개풀려 천진한 어린애처럼 피어났다.

“내 그럴 줄 알았지요. 모두 미친 것처럼 날뛰는 꼴이. 그런데 참 이상하군. 강선생이야 어디.”

“글쎄 말이요. 지리선생은 그 울퉁불\* 때문에 그랬겠고.”

하자 서선생은 또 계집아이처럼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며 카들카들 웃었다.

“맞았어요, 맞았어. 그 영감님이야 울퉁불 텃이지. 그 쪼이나쪼이 쪼이나쪼이, 굵시춤 추는 꼴은 칼칼칼칼, 칼칼칼 맞았어요. 순전히 그 영감님이야 울퉁불 때문이었지.”

“생물선생은 그 졸랑거리며 연설하는 맛 몇 번 보다가 그리 됐을 게고. 어디서나 빠치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다가 그만.”

“맞았어요, 그 자식은 이번 길에 좀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구요.” 생물선생은 서선생과 나이가 비슷한 데다가 무슨 일이나 서로 헐뜯기부터 하는 라이벌 사이였다. 규호는 허죽이 웃으며 또 주위대었다.

“수확선생은, 그건 진짜지. 그 두 눈 보지. 원래 만만치 않은 녀석이었거든. 사람도 그만하면 실하구. 그야말로 혁명개나 하게 생긴 사람이었지.”

“맞았어요.”

서선생은 말끝마다 반색을 하듯이 맞았어요, 맞았어요 하고 맞장

구만 친다. 매사에 제 주견이라는 것이 별로 없고, 한약 건재상을 하는 아버지가 없으면 굶어 죽기 꼭 앞맞은 아적 애송이다.

“근데 정말 강선생은 뭘까?”

“역시 마찬가지로 교련(敎聯) 일이겠지.”

“강선생이 뭘 했나요? 내가 알기로는.”

“첫 무렵에 연설 두어 마디 했거든. 그때부터두 어느 구석인가 수 상쩍다 싶어 미리 몸조심 겸해서 난 딱 전제를 새웠다는 말이야. 이런 일이 어떤 불순분자에게 이용당하기도 쉽고 또 그렇게 오인을 받을 우려도 있으니, 이 점은 각자가 신중하게 경계를 해야 한다구. 허 지만 회의록이 있는 것도 아니구 뭘루 증명을 해. 그래서 첫 무렵 조 직할 때만 열을 좀 내구 그다음엔 팔이 수상하게 뻗어기길래 싸악 손을 끊었거든.”

서선생은 또 쫓이나쫓이 지리선생 영감(서선생의 아버지)은 될 것이다)이 떠올랐는지 생긱이 웃었다.

“그 무렵, 왜 지리선생 말이에요. 각국의 개인소득 지수와 교원 대우의 비례관계, 그리구 달리로 환산한 교원 월급, 그걸 어디서 그렇게 주워 모았었는지 과연 대단합니다. 사실 지리선생 말이 맞기는 맞지요. 또내기장사하는 놈들이나 호박을 만나는 세상이지, 이거 교원 이야 백 년 가도.”

어느새 얘기는 이렇게 오순도순하게 뻗어갔다. 규호는 이런 집에 와서는 으레 그러는 것이 편리한 것이지만, 일부러 더 약간 개차반의 서민풍을 내었다. 내일 저녁쯤 한약상 영감님이 그 외아들을 불러 앉히고 “그 나잇살이나 먹은 지는 무엇 가르치는 자냐?” “사회생활 선

생이냐요.” “뭘? 게다가 사회생활? 옛적으로 치면 수신이나 도덕이 아니냐?” “네.” “세상 꼴, 자알되네.” 이편의 속도 모르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멋대로 평가를 한들 어쩔 도리는 없다.

이쯤서 반이 지나자 망 바깥에는 수상한 기운이 떠돌았다. 이젠 그만 가라는 신호인 셈으로 배시시 묻이 몇 번 열리고 닫히고 하였다. 드디어 서선생이 잠깐 나갔다가 단정한 얼굴로 도로 들어오더니,

“자아, 이젠 우리 잡시다.”

허였다. 아무리 서선생이 신혼이라지만, 으레 이 방에서 같이 자려니 하고 옷을 훌렁훌렁 벗자니까 그는 이불장에서 이불 하나를 꺼내어 들고는 그냥 입을 채로, 벗은 옷은 벗은 옷대로 들고 따라 올라오란다.

이층 골방 구석에 결국 혼자 처박혀졌다. 두어 평방에 안되는 좁은 방에 나무침대 하나가 뿔뿔 놓여 있을 뿐이었다. 술김에도 김이 짝 새고 기분이 안 좋은 대로 여허튼 첫날 밤은 여기서 잤다.

이튿날 아침 잠이 깨어 두 손으로 턱을 괴고 간밤의 일을 거듭 처음부터 곰곰이 생각해보았으나 모든 일은 그저 아리송할 뿐 도무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요망할 수가 없었다.

서선생과 진수성찬의 조반을 같이 들고 나오자, 규호는 서선생과 학교 근처 골목에서 서로 헤어져 퇴근한 뒤에 잘 들르는 단골 다방에 가 있었다. 대강 조건들을 훑어보고 나서 그곳을 나섰다. 이미 출근 무렵의 러시어워가 지나고 거리는 한갓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뻗었다는 것인지, 무엇을 어쩐다는 것인지 전혀 요망할 수 없는 대로, 이집 저집 라디오에서는 “반공을 국시의 제

일의로 삼고”가 여전히 터져나올 뿐이었고, 그럴 때마다 딸은 웅은 소리지, 웅은 소리고말고 하고 스스로 생각해도 좀 민망해질 만큼 아침조가 깃들인 소심한 심정으로 혼자 중얼거렸다. 대저 이런 식으로 한낮의 거리에 내뿜게쳐져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날벼락이다. 서너 군데 다방을 훑고, 간밤의 술 탓으로 다방마다에서는 화장실부터 들어가 설사를 하고, 소다수·커피·홍차 따위를 닦치는 대로 미쳐두고, 다시 단골 다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겨우 오전 열한시였다. 빌딩 사이로 내다보이는 바다는 과연 오월의 바다에 어울리게 짙은 남빛이었다. 규호는 또 집 앞 집화상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룻밤 사이에 마누라의 목소리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으로 절어들어 있었다.

“거기 어디예요?”

“다방이야.”

“옛적녘은 범일동에 있었어요?”

“아니 죽어선생 서선생 집에 있었어.”

“참, 오늘 아침 또 왔었어요.”

“뭐?”

철렁하고, 그 서늘에 밑구멍에서는 또 푸석 하고 소리가 나왔다. 이것은 어찌 뱅귀 같지가 않다. 철사 기운이 또 내들친 것 같다. 영거북하다.

“오늘 아침에는 혼자 와서, 언제쯤 돌아오느냐고 물어뵈다.”

“게금은 뭇디까?”

“줄지예요.”

“그래, 뭐했어?”  
“모른다고 했지요.”  
“잘했어.”

그럼, 아무런 대답 잘했지. 수화기를 놓자 가슴도 뛰었지만 뒤보는 일이 더 급하였다. 화장실로 달려갔다. 콩고름개도 안에 누가 있었다. 탕탕탕탕 염치없이 연방 두들겼다. 레지가 나오더니 두 눈이 가로 찢어지게 신경질을 부렸다. 내의에 철사 기운이 내들쳐 있어 엉거 주춤히 서서 그것을 우선 휴지로 닦아냈다. 공상맛고 한심한 꼴이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앉아서 안간힘을 썼지만 젖은 바람기만 무엿 터지는 소리를 내며 나갈 뿐, 전혀 기척이 없다. 그러자 갑자기 배가 쓰러왔다. 그는 앉아서 오만상을 찌푸렸다.

근처 약방에 둘러 지시체\*를 사서 먹었다. 그리고 다시 한길에 나섰다. 의식은 여전히 한 방향으로 동쪽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듯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몽롱하였다. 왼쪽 배가 자꾸 뒤틀렸다.

오후 두시경 그는 다시 어슬렁어슬렁 학교 근처로 가보았다. 오월의 맑은 햇볕 밑에서 삼학년생들이 아래위 백색 차림으로 맨손체조를 하고 있었다. 풍경이 제법 청결했다. 체육선생은 초록색 운동모자를 쓰고 단 위에 서서 균형이 잡힌 모습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바리톤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것을 구경하고 있으려니 무엇인가 단순하게 회한한 생각이 들었다. 이때까지 한 학교에 있었으면 서 지린 풍경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이 의아스러웠다.

언덕을 내려와서 다시 아무 데나 다방을 들어가 이번에는 학교에 다가가 전화를 걸었다. 학교에도 군인이 찾아왔었다는 것이다. 무단걸



근중이라고 했다. 잘했다, 암 대답 잘했다.

일은 틀림없이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다  
는 것인지 요망할 수 없는 대로, 그저 머릿속에서는 광광광광 방방이  
소리만이 더 크게, 더 쾌속으로 울리고 있었다. 어느새 그는 불후 사  
십객담지 양계 어적어적 껌을 씹으며 전치에 올라타 있었다. 초랑에  
서 내리는데, 마침 건너편 라디오방에서 “반공을 구시의 제일의로  
삼고”가 왈각 또 터지고 있었다. 규호는 그 소리에 화닥닥 놀라면서  
골목길로 달려 들어갔다. ‘웁은 소리지, 웁은 소리고말고.’ 잠시 뒤  
에는 짐작케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호젓한 골목길 끝까지 오  
자 손수건을 꺼내 이마의 땀을 훔쳐냈다.

오후 세시경 규호는 어느 쓰레기통 옆에 오도키니 앉아 있었다. 자  
동차가 두어 대쯤 드나들 만한 널찍한 골목길이었다. 물기가 차게 가  
라앉아 있고, 양쪽에는 높은 벽돌담에 그 끝에는 삐죽삐죽한 쇠코창  
이 화살까지 꽂혀 있어 대강 근처의 분수를 금방 짐작할 만한 곳이었  
다. 짐작마디의 큰 문에는 ‘공견 주의(公犬注意)’라는 팻말이 붙어 있  
고, 대개 부챗집들이 다 그렇지만 바깥문마다 닫혀 있어 그 완강히  
폐쇄된 속의 안 세계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배 안에서서는 자꾸 꼬  
르륵 소리가 나고 이따금 뒤틀려서 규호는 자주 오만상을 쟀그렸다.  
문득 골목 막다른 집에서 문이 열리며 예순 가까이 보이는 뽕뽕한 노  
인이 텅수룩한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왔다. 처음에는 집 문 앞에 갈  
이 앉아 개의 털을 빗질해주듯이 쓰다듬어주더니 어느새 개와 마주  
앉아서 장난을 하기 시작했다. 그 장난이라는 것이 매우 회한하였다.  
노인은 개의 두 귀를 잡고 개의 눈알이 자기 쪽으로 곧바로 향하도록

강제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었다. 회한하다. 규호는 두 눈이 휘둥그  
레졌다. 한테 개도 사람의 눈을 한참씩 들여다보는 것은 민망하고 멧  
찍은 듯 심세하게 수줍어하고, 스팀스름 눈알을 굴리면서 외면을 하  
였다. 이러면 노인은 더욱더 기를 쓰면서 개의 얼굴을 요리조리 돌려  
가며 개의 시선이 자기 시선에 맞도록 기를 쓰는 것이다. 그 키티키  
들 웃는 표정은 그로테스크한 열기까지 띠고 있었다. 차라리 개의 표  
정이 훨씬 담담하게 인간적이고, 그 야수적인 웃음을 흘뜨리는 노인  
의 표정이 짐승인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놈, 제법 이리 수줍어하  
노” 하고 노인은 어눌한 목소리로 꺼들꺼들 웃으며 혼자 지껄이고,  
계속 개의 눈알에 제 시선의 앵글을 맞추려 하였다. 그러나 개는 툴  
툴거리면서 쾅쾅거리고 잡힌 귀를 빼내려고 몸을 뒤틀었다. 어느  
새 그러는 개의 눈길은 제대로 둔탁한 개의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드디어 노인은 화를 내고 개의 두 발을 후려베리며 놓아주었다. 그렇  
게 놓여난 개는 골목길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바탕 경충경충  
뛰다가 쓰레기통 옆에 앉아 있는 규호를 보자 어슬렁어슬렁 가까이  
다가왔다. 바로 앞까지 와서는 규호의 실사 기운 냄새를 맡은 듯 뺨  
히 건너다보았다. 규호도 뻔히 마주 보다가 개의 눈길을 피하고 자기  
가 먼저 외면을 하였다. 노인은 아직 쓰레기통에 가려 있는 규호를  
못 본 모양으로 개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러자 개는 그쪽으로 달  
러갔다. 규호가 오만상을 쟀그린 채 쓰레기통 옆에서 살짝 머리를 들  
고 내다보았다. 개는 주인 곁으로 가서 퐁퐁거리다가 다시 암전하게  
가라앉으며, 이번에는 주인에게 놓여난 것이 슬퍼진 모양으로, 그리  
고 조금 전에 붙을 맞은 것이 서운해진 모양으로 주인의 눈치를 힐끔

거리며 아양을 떨더니 그 앞에 번듯이 누웠다. 비로소 노인은 번드르하게 까진 이마까지 빈뚱하게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가서 개의 등을 꼬드꼬드 두들겨주었다. 자랑듯 피어 있는 속의 무위를 건디지 못하고 있는 이 근처 집들에는 그 요란스러운 혁명이라는 것이 전혀 누비고 있지 않음이 확실하였다.

노인과 눈이 마주치자 규호는 스프르 일어섰다. 동시에 노인도 놀라 일어서고 개도 따라 일어섰다. 개가 멍멍 짖어대면서 달려들려고 하였다. 규호는 한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오만상을 쥘그리면서,

“저 혹시 변소 좀 빌릴 수 없을까요?”

하자 노인은 대변에 험한 얼굴이 되며 규호의 아래위를 훑어보고는, “없어요.”

하고 한마디로 잡아떼고는 개를 끌고 도로 돌아가버렸다. 문이 닫히자 그 완강히 폐쇄된 속의 안 세계는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

어느새 규호는 맨머릿바람으로 그 골목길을 달려나가고 있었다. 공중변소나 다방 변소를 찾아나가는 것이었다.

저녁이 되자 규호는 버스를 잡아타고 구포로 나갔다. 피인한\* 낙동강이 보이자 조금 가슴이 후련해졌다. 방죽에 의젓하게 서서, 아까 낮에 본 그 체육선생 모양으로 제법 팔다리 체조를 하고 심호흡을 하였다.

그날 밤 규호는 구포 바닥의 어느 허름한 술집에서 맨살이 흰히 들여다피는 아래위 분홍색으로 입은, 몹시 색감적으로 생긴 술집 계집에게 반해버렸다. 단둘이 영망으로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하자 자기는 지금 쫓겨다니는 혁명가라고 제법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하고, 그 어

자를 끼고 왔다.

규호는 밤세도록 제정신이 아닌 듯이 날뛰었고, 여자는 새벽녘이 되자 세상에 이런 지독한 남자는 처음 보았다고 혀를 내두르고 신경질을 부리고 하였다. 이미 초저녁에 들었던 혁명가고 뭐고 없었다. 혁명이 났는데, 혁명가가 이라고 자빠졌다니. 알고 보니 천하무적 해구신\* 같은 작자에게 걸린 것이라고 학질을 때었다.\* 화대고 뭐고 필요 없으니 어서 당장 나가라고 빼락빼락 소리를 질렀다. 규호는 기력이 낮은 전깃불(홍동이였다)을 켜고, 피속피속 웃고 있었다.

일이 어찌다가 이 모양이 됐을까. 의식은 어떤 한 방향으로의 농축 현상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분명하지가 않고 이것저것 사리가 당개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다기든 어느새 생각은 오리무중으로 꼬리를 감추고, 그러나 여전히 정신은 웬 열기운 속에 휘말려 있었다. 그저 처음에는 자기가 헛트림을 하며 집에 들어섰고, 그다음 마누라가 문을 열고, 모자를 잊어버리고, 맨머릿바람으로 감감한 속을 달려 내려왔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하여 그 달려던 일부터는 모든 일이 웬 질은 장막 하나를 뒤집어쓰고 흡사 안개가 자욱한 속에 여기 저기 덩성덩성 돌아오르듯이 사선생, 사선생 사모님, 쾡쾡쾡쾡 뒤불 일이 급해서 다방 변소를 두드리던 일, 초록색 운동모자를 쓴 체육교사, 그리고 그 부유촌 골목길의 노인, 공견, “반공을 구시의 제일의 로 삼고”라는 시장 바닥 같은 거리 바닥에 텅 비게 매이리쳐가는 목 소리…… 등이 떠오를 뿐이었다. 대관절 무엇이 어떻게 났다는 것인지 요랑할 수가 없었다.

규호는 호주머니에서 지전 문치를 꺼내보며 또 극히 소박 단순하게 비죽이 웃었다.

혜정국을 먹다가 또 변소로 가고, 구포 바닥의 어느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또 변소로 갔다. 배속은 그냥 꼬르륵대었다. 촌구석 다방이고 아침이어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다방에서는 라디오만 틀었다. 짜개지는 행진곡이 울리다가 또 “반공을 구시의 체일의로 삼고” 하고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규호는 또 깜짝 놀라서 마시던 커피를 그냥 돈 채 얼떡얼떡 커피값을 치르고 흥흥계단을 달려 내려오며 땀뻘 땀뻘 하고 그 아나운서를 욕하고 있었다. 결국 어느새 그는 반공에 쫓기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용사여. 나는 상이군 인이여. 체일선 김종오(金鍾五) 사단장 휘하의 9사단에서 백미전투를 겪은 퇴역 육군 중위여. 누가 뭐래여. 이 나를 두고 어느 놈이 뭐라는 거여.’ 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흥흥계단을 뱅당뱅당 달려 내려오고 있었다.

동면에서 또 오웰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어느새 규호는 차악 가리앉은 표정으로 좀 전의 다방 흥흥계를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한결 사리의 윤곽을 명백하게 잡은 듯한 분명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었다.

“어머, 어디 있수?”

미누라의 목소리는 이미 반 미쳐 있었다.

“구포야.”

“어찌 구포?”

“음, 친구가 있어서.”

규호는 쓸쓸하게 조금 웃었다.

“그새 별일은 없었구?”

“옛저녁에 또 왔었어요.”

머리끝이 주뻗하고 또 절렁하였다.

수화기를 잡은 채 달궂힌 눈길로 좌우를 살피었다. 눈까풀을 파르르 떨며 두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그래 뭐랬어?”

“아직 안 왔다가 했지요.”

“잘했어, 대답 잘했어.”

“근데 옛저녁엔 시복 형사였어요.”

“색안경을 끼었습니다니까?”

“뭐요? 이제 뭐랬수?”

규호는 정신을 차리며,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시복 차림의 형사가 혼자 왔는데 매우 시근시근합니다.”

그럴 테지. 아무렴 그랬을 테지. 그런 수를 썼을 테지. 몇 마디 더 하고 수화기를 끊자, 규호는 또 쿵쿵거리며 먼지가 풀썩풀썩 이는 다방 계단을 내려갔다.

자, 이제 어찌할 것인가. 그러자 경황이 없는 속에서도 또 점잖게 비시시 쓴웃음이 비어져나왔다.

달아놓고 버스를 타고 김해 쪽으로 나갔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그는 꼬덕꼬덕 즐기 시작하였다. 이때금 화닥닥 놀라 눈을 뜨면 옆으로 새빨간 먼지를 일으키며 부산행 버스가 와그렁와그렁 지나가

고 있었다. 낙동강 거의 들판은 오월이 그 맛밋하고도 싱그러운 전원 풍경을 드러내고 있었다. 맨머리카락이 선뜩한 바람에 흩날리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이렇게 덜컥거리는 버스 속에서 그는 비로소 웬 안정감을 회복하고 있었다. 안정감이라기보다, 그 한 방향으로의 농축 현상을 드러내고 있었던 의식의 고양 상태가 스스로 무너지고, 몸 안에 서도 개울이 흐르듯이 가슴속이 뿔러서 버스와 더불어 흘러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냥 잠에 푹아떨어졌다. 얼핏얼핏 꿈결에 그 공전이 달려들고 있었다. 그때마다 화닥닥 눈이 뜨이면 옆으로는 부산행 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고, 그 외곽 부풀어 올랐다가는 수그러져가는 소리에 어느새 달려들던 공전도 번번이 수그러져 달아나곤 하였다.

김해에서 내리자 서늘 선 칼날처럼 차고 선듯한 분위기가 다시 대뜸 휩싸고 외곽 그 한 방향으로의 의식의 집중과 고양 상태에 휘몰리는 것이었다. 또 방귀를 끼기 시작하고 배가 뒤틀렸다. 김해 바둑이라 부산 바둑과는 달라 변소 인심은 매우 후하였다. 널찍널찍한 변소 속에 앉아서 규호는 곧잘 혼자서 끼들거리면서 웃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됐다는 것인지 영문을 알 수는 없었지만, 여하튼 시뻘연 속에서도 지꾸 웃음은 나와졌다. 물론 이렇게 변소 속이나 앉아야 그렇지 한결에만 나서면 다시 열기운 속에 휘감겨드는 것이었다.

열두시 오정 썬이렌이 요란한 통에 눈을 떴을 때는 웬 여관방에 혼자 누워 있었다. 일어나 앉자 그는 쿵쾅쿵쾅 흡사 어린애 울듯이 조금 울고 있었다. 다음 순간 일어서서 벽에 걸린 큰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면서 눈물을 닦았다. 지그시 거울 속의 자기를 들여다보다가 모

로도 서보고, 앞으로도 서보고, 뒷모양을 보기도 하고, 그다음 얼굴 전체를 거지거지로 쨍그리며 오만 가지 장을 다 헤보다가 또 히죽 웃으며,

“기만 보자, 이발할 때 두 됐지.”

하고 한마디 씨부렁거렸다.

점심을 먹고 오후 두시경 그는 김해 이발관에 앉아 있었다. 이발하는 동안 내내 쿵쿨 잤다. 수염까지 밀고 머리에도 폼마드를 싸얌바르고 다시 넓은 거울에 이모처럼 살펴보고 뒷모습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는 이발소 앞에 나와 앉아 구두를 닦았다.

구두 닦는 아이는 제법 애교가 있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양을 떨었다.

“아저씨 직업을 제가 맞힐게요.”

“그래, 내가 뭐하는 사람 같으냐?”

어느 모로 보나 규호는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눈두덩과 얼굴이 좀 부정부정하게 부어 있는 것이 평소와 다를 뿐이었다.

“장사하는 건 확실한데. 그죠? 장사, 확실하죠?”

“예끼놈, 내가 장사꾼으루 보이냐?”

“대낮에 이발하시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장사 아니에요?”

규호는 제법 두 눈을 부라리며,

“인마, 내가 혁명가다.”

꼬마는 구두를 닦다가 말고 낫을 쨍그리면서,

“에에이, 아저씨 공가알.”

“인마, 왜 상관은 쨍그려?”

“에에이, 아저씨 공기알.”

혁명가라는데 공갈이란다. 혁명가가 공갈이라는 뜻인지, 혁명가라고 하는 거짓말이 공갈이라는 소린지 잘 짐작이 가지 않은 대로 “인마, 정말이야” 하였다.

저녁이 되어, 버스에 몸을 신자 다시 잠이 들었다.

이날 저녁 규호는 동래 온천장으로 들어가서 또 색시를 끼고 잤다. 색시는 열에닐곱 살밖에 안된 애송이였다.

사흘째로 접어들던 날 저녁, 규호와 군대 동료였고 지금은 육군 중령인 최중령이 집으로 찾아왔다. 물론 규호 마누라도 잘 아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군대 있을 적부터 허물없는 사이다. 서울에 있었을 텐데, 남편의 소식을 듣고 살리려고 내려온 모양이었다.

규호 마누라는 너무나 반가워 눈물을 글썽였다. 가슴이 억해서 말을 못하고, 어린애를 안고 울먹울먹거릴 뿐이었다.

최중령은 약간 의아스러운 눈길로 규호 마누라를 건너다보았다.

“아니, 규호가 어딜 갔다구요?”

순간 규호 마누라는 왈카 타지듯이,

“양이, 최중령까지 이리가요? 양이 세상에, 최중령두 그일 의심하오? 양이 세상에 이런 법이.”

최중령은 어리둥절해지며,

“의심하다니요. 아니 무슨 소리요? 대관절 규호는 어디 갔소?”

비로소 규호 마누라는 멀뚱히 최중령을 건너다보다가,

“아니.”

하고는 재빠르게 속삭였다.

“잠으러 와서 도망다니구 있어요.”

“뭐요?”

최중령은 한순간 기겁을 하듯이 놀라더니, 대뜸 얼굴이 시뻘개지며 규호라도 쳐죽일 것 같은 낯색이 되었다.

“이 쌍눈으 썩끼덜. 대체 일들을 어떻게 하기 이 모양이야. 개성놈으 썩끼덜. 이놈으 썩끼덜.”

하고는,

“그래, 어딜 도망다니요?”

“양이 그럼?”

“지금 마산 부시장 자릴 정해놓구 찻구 있는 관인데.”

비로소 규호 마누라는 덴바닥에 탈췌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양이 저걸 어찌우. 양이 글썩, 내가 지레 겁을 먹어가거구.”

(웃을 일이 아니다.) 어찌 울음이 안 터질 일이겠는가.

“그래 대관절 어딜 가 있소?”

“그제 아침께까지 전화가 있었는데 그 뒤는 전화두 없어요. 양이

돈만 평평 쓰구 술만 치마실 테구, 양이.”

그러나 벌써 즐거운 엄살 기운이 완연하였다.

“고르텐바지에 모자까지 팽개치구 나갔으니 꼭 미친 사람일 텐데.

글썩 어디서 찻수?”

“아니, 세상에 온 이런 법도 있다. 여허튼 그 쌍눈으 썩끼덜. 이놈

으 새끼들. 일을 어떻게 하기.”

최중령은 거듭거듭 부하들 유만 하고 있었다.

대관절 어찌 일이 이렇게 버그러졌을까. 그러나 구태여 그 연유 같은 것은 따지지 말기로 하자. 우선 사람을, 미산 부시장을 찾아내야 할 것이었다.

어느새 규호 미누라는 부시장 사모님다운 행색을 갖추고, 잡화상 전화통 앞에서 전화 오기만 기다리고 서 있었다. (웃을 일이 아니다.)

한편 규호는 동래 온천장에서 색시를 끼고 또 하룻밤 자고는 그 이튿날 열한시쯤까지 색시와 더불어 온천을 하고, 거드러지게 인머사까지 불러서 인머를 한 뒤 다시 버스를 잡아타고 구포로 나갔다. 그저께 저녁의 그 술집에 들렀다. 그달 하룻밤을 같이 지낸 그 여자는 금강산 화투패를 때다가 제법 반색하며 달려나왔다. 사방님 오신다고 법석을 피우고, 우르르 색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대낮부터 그런 싸구려 화장품 냄새가 물씬거리는 방에 번듯이 누워 있자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싸구려 여인들의 싸구려 농지거리도 그닥 싫지는 않았다. 당장은 모든 것을, 미누라의 일까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가 있었다. 더러는 전화 걸 일이 생각나기도 했으나,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서는 생각을 이끌어가지 않을 요량이었다. 전화를 걸어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든 일조차 몸서리가 처졌다. “그사이 별일 없었소?” “또 왔어요.” “저런.” 월평, 그리고 방귀, 그리고 설사. 전화를 건대도 이미 미누라가 나타날 정실지도 않았다. 일은 급속도로 확대되어 미누라까지가 잡혀갔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집에 기다리고 있다가 미누라가 전화 받는 것을 옆에서 지키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느덧 규호는 구포, 김해를 왔다갔다하고 있었다. 하루 저녁은 구포에서 술을 마시고, 이튿날 저녁에는 김해에서 술을 마셨다. 술집 색시들은 잔칫날 만난 듯이 흥청거리고 서커스단이나 온 것처럼 수다스러워졌다.

규호는 이젠 뭐가 댈지, 어떻게 되어가는 팔인지 모르는 대로, 돈은 거의 바닥이 나고 있었으나 태평, 태평이었다. 술을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설사를 하고, 변소에 누가 있으면 급하게 변소문을 쾅쾅 두드리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도 사람의 소식은, 부시장의 소식은 감감하였다. 드디어 거리는 발각 뒤집혔다. 거의 한 부대에 해당할 만한 인원이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여관, 삼류 숙박소마다 인상착의 동동이 알려졌다. 순찰차까지 동원되었다. 맨머릿바람에 코르텐버지 차림에 어깨가 조금 앞으로 구부러진 중년 사나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맨머릿바람에 코르텐버지 차림에 어깨가 조금 앞으로 구부러진 사람은 왜 그리 짝어지게도 많은지, 거리마다 골목마다 꼭 차 있었다.

그런 사람은 모조리 불심검문에 걸리고, 털썩 가슴이 내려앉고, 끌려가고, 그러나 금방금방 놓여났다. 여기저기에 수색 지부가 마련되고, 흡사 혁명은 이자를 잡기 위하여 일어나거나 한 것처럼 모든 혁명적 열의는 한 방향으로 집중 현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규호 미누라는 잡화상 전화를 기다리는 데도 지쳐서 이젠 될 대로 되라는 셈으로 벌써 부시장 미나님 행세부터 하기 시작했다. 근처 아낙네들이 소식을 듣고 몰려왔다. 으레 이런 소식은 날개가 돌치게 마련이었다. 범

일동 언니와 형부도 소식을 듣고 양과자 꾸러미를 들고 찾아오고 있었다. 학교도 대소동이 벌어졌다. '무단결근'은 '사고결근'으로 정정되고 전 학생들에게도 사회생활 선생님을 후시 보면 모시고 오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점심시간마다 목청 고운 여선생은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사회생활 선생님, 사회생활 선생님, 사회생활…… 학생들은 제각기 운동장에서 장난을 하다가도 신묘한 표정으로 마이크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군복 차림과 사복 차림이 번갈아 드나들고 사회생활 선생님 사모님도 직원실로 들락날락했다.

결국 사람이 가 있는 곳을 알아냈다. 헌병 셋이 총무 바닥의 어느 뒷구석 여관으로 급습을 했을 때, 규호는 위대한 총무공의 이름을 딴 총무시의 이름에도 영예롭지 못하게, 낮임에도 또 색시를 끼고 허름한 여관방에 지배져 있었다.

새까만 내의 바람으로 나오며 규호는 쓰디쓰게 웃었다. 드디어 온 것이 온 것뿐이었다.

“강구호 선생님이십니까?”

헌병 한 사람이 다가서며 묻자 규호는 우락부락 소리를 질렀다.

“그렇스.”

“모시러 왔습니다.”

“뵈, 모시러 와? 이 지숙아, 입은 비뚤루 깨져두 밑은 똑바루 하겠어. 잠으러 왔으면 잠으러 왔지, 머? 모시러 와?”

“여하튼 가십시오.”

“오냐, 이제 도망이야 가겠다. 조금만 기다려.”

들어가서 옷을 주워 입고 나왔다. 과연 맨머릿바람에 코르텐바치 차림에 어깨가 앞으로 좀 구부러져 있었다.

교통 규칙을 무시한 호스피드의 지프 속에서 규호는 앞자리에 앉아 또 방귀만 뀌고 있었다. 막걸리와 커피가 뒤범벅이 된, 몹시 구린 냄새에 뒤에 앉은 헌병들은 차마 밑은 못하고 쿡구멍만 벌름거리고 있었다.

“모시러 와? 왜 탁 터놓지 못하구 마지막까지 그 알량한 수를 부리나? 잠으러 왔음 잠으러 왔다고 똑똑히 말을 못하구.”

이렇게 지결여대는 규호의 입에서는 연방 술냄새가 풍겨 나오고 있었다.

지프차에서 내린 규호는 어리둥절해졌다. 최종령이 다가와서 웃으면서 악수를 청해도 뺩하게 쳐다볼 뿐 섣뜻 손을 내밀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서 최종령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시종 표정이 없었다. 그러나 드디어 피시시 웃음이 비어져 나오고, 그 웃음은 치졸 실성한 사람처럼 끼들끼들 끼들거리었다. 또 방귀가 나오고 속이 매스거리고 뒤틀렸다. 변소에 가 있어서도 계속 웃었다. 다시 나와서는 최종령을 마주 보며 물었다.

“그래 내가 마산 부시정이라는 말이야?”

“…………”

“난 못해. 내 양심으로는 못하겠어. 며칠 저녁을 무슨 짓 하고 어떻게 돌아갔는지 아니? 자네가 아니?”

더 이상 무슨 얘기를 지결인다는 것은 더 고위층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을 다물었다. 어느새 규호는 맨머릿바람에 코

르텐버저 차림으로 그곳을 나와 텔러덕텔러덕 집을 향해 걸어가  
 있었다. 일순 혁명은 잠시 어리둥절해지고, 닭 쫓던 개처럼 뺨해져  
 있었다. 다음 순간 어느 길가 점포에서 또 왈칵 “반공을 국사의 제일  
 의로 삼고”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규호는 또 화닥닥 달려라고 하다가  
 다시 생각하고, 피시지 웃으며 뗏국이 낀 손수건을 꺼내 코를 풀  
 었다.

결국 1961년의 혁명은 이렇게 영똥한 사람들의 영똥한 모서리를  
 누비며 지나갔을 뿐 모든 사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한  
 번 꿈틀하며 소용돌이는 쳤으나, 깊이 경화되고 폐쇄된 이 바닥은 완  
 강히 그 문을 닫고, 이를테면 그 예순 노인파 공건의 그로테스크한  
 심심풀이 장난은 추후도 상처를 입지 않았다.

어느덧 서서히 그 물결이도 걸만 훑으며 휘돌아가고 그 뒷거리에는  
 새로운 집촌들이 더욱 기승을 띄고 있었고, 국어선생 서선생 집의  
 한약 건재업도 어느덧 큰 거리에 빌딩을 차지하고 근대화된 차림으  
 로 달로 변장해가고 있었다.

『시상계』 142호(1965. 1): 『소설한 밤의 이야기』(정미출판사 1991)

## 남에서 온 사람들



### 1

남쪽에서 의용군으로 마약 율리온 남로당원 갈승환(葛承煥)씨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막내이모부를 문득 떠올렸다. 비록 생김새는  
 달랐으나, 두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는 매우 비슷하였다.

막내이모부는 시내 어업조합 서기로 다녀, 인근 농촌 출신으로는  
 가장 먼저 도시의 세례를 받은 축에 속하였다. 첩첩으로 겹쳐여 있는  
 무거운 기와집의 바깥을 에워싼 흙담부터 헐어내고는, 인과 밖이 흰  
 히 들여다보이고 내다보이도록 통유리 달린 반양옥으로 개축했을 뿐  
 아니라, 그 당시는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던 10급짜리 체니스 라디  
 오도 일찍부터 장만하여 온 길명리 마을이 떠나갈 듯이 왕왕 틀어대  
 었다. 한때는 아침저녁으로 빨강색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고,